

보도시점

2026. 7. 7.(화) 17:00

배포 2026. 7. 7.(화)

국가 열에너지 혁신...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로 실현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주재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관련 국정과제】 38. 경제성장 대동맥,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7일 오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 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주제로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건물부문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냉·난방의 전기화가 핵심 과제다. 최근에는 하나의 설비로 냉방과 난방을 모두 제공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히트펌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를 견인할 핵심 설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주거형태(총 19,873천호) 구성비 : [공동주택] 아파트 65.3%, 연립·다세대 14.3%, [단독주택] 19.3%, [비주거용] 1.1%(출처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의 후속조치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기존 도시가스 중심의 공동주택 냉·난방 구조를 전기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실증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보완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국가 열에너지 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부터 열에너지 이용 방식을 바꿔야 국가 열에너지 혁신도 실현할 수 있다”라며, “가스 없는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 히트펌프 실증과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열에너지 혁신 토론회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권병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3-5145)



□ **추진배경**

- 건물부문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해 국내 주거 형태의 약 80%*인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보급 방안 논의

* 주거형태(총 19,873천호) 구성비 : [공동주택] 아파트 65.3%, 연립·다세대 14.3%, [단독주택] 19.3%, [비주거용] 1.1%(출처 :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26.7.7(화) 17:00 ~ 18:00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소열산업정책관, 열산업혁신과장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좌장),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오세신 실장
등 산·학·연 전문가 약 30명
- (주요내용)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

□ **세부계획(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7:00 ~ 17:05	5'	• 개회	
17:05 ~ 17:15	10'	• 공동주택 히트펌프 보급 방안	
17:15 ~ 17:55	40'	• 자유 토론	
17:55 ~ 18:00	5'	• 폐회	